

# ‘김옥희 사건’ 30억 수수 ‘진실게임’

## 김씨 범행 공모 브로커에 책임 떠넘겨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옥희 여사의 사촌 김옥희 씨가 책임 소재를 공범인 브로커 김모(구속) 씨에게 계속 떠넘기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8대 총선의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3월 브로커 김 씨와 공모해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10억 원씩 30억원을 수표로 건네받고 3천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벗기 위해 브로커 김 씨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울 것을 요구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브로커 김 씨에게 먼저 검찰에 나가 “김옥희는 아무 것도 모르고 내가 모든 범행을 계획하

고 실행했다”고 주장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김 이사장을 만나 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 씨는 합의 종용 후 휴대전화기 전원을 꺼둔 채 충북 음성군 꽃동네와 경남 밀양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했다. 또 서울에 온 뒤에도 자택이 아닌 서울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김 이사장 수첩에 자신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기재돼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검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씨보다 먼저 체포된 브로커 김 씨는 수사 초반에는 김 씨가 요구대로 “김옥희는 아무 것도 모르고 내가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김 씨를 감싸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김 씨가 그러나 지금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나는 김 씨의 심부름만 했을 뿐 김 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공천 부탁을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김 씨도 여전히 브로커 김 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고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쓴 적도 없으며 전액 브로커 김 씨에게 줬다며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브로커 김 씨가 포항 건설공사에 돈이 필요하니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브로커 김 씨는 “건설공사를 한 적도 없고 3억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발뺌하는 등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양측의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행을 공모한 김 씨와 브로커 김 씨가 변호인 등을 동원해 상대를 비난하는 등 양의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양측 ‘진실게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8대 국회 원구성 난항에 대한 당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院구성 재협상 하자”

## 민주 “靑 장관 임명 강행 땀 국회 파행 책임져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키로 잠정합의에 따라 민주당과 기존에 합의한 원구성을 깨고 새로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발표가 났다”며 “민약 공동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지금 민주당과 한 국회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건 추가협상이 아니고 야당이 좋아하는 재협상”이

라며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의 원내대표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서 이 문제를 타결 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벌써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삼일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5개,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2개를 각각 나눠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며 6일로 예정된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이 국회 일정 중단을 경고하고 나서고 있어 원 구성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인

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 등 이후 모든 문제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깬 것은 유신시대에도 없는 폭거”라며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원구성협상은 물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등의 사안들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 장기 공천사태와 관련, “광복 63주년, 정부수립 60주년의 뜻깊은 8월15일까지 해결책이 제시돼야 하며 원구성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으로서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 ‘김옥희 사건’ 불똥 튀까 전전공공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옥희 씨가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한나라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이 사건을 단순사기로 규정하면서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18대 총선 공천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또 당 일각에서는 이미 당시 실세들로 꼽혔던 인사들의 급물살 수습 등 ‘물기마 파다’이 회자되고 있다.

한 당직자는 5일 “이번 파문 말고도 파다에 3~4개 더 있는 것 같고, 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국정 지지율도 안 좋은 데 만약 문제들이 구체화될 경우 상황이 더욱 꼬이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당내에는 이번 정부 실세로 꼽혔던 A의원의 경우 최근 급물 수수와 관련한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며 일부 수수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또 다른 B인사의 경우도 청탁을 받고 영남권 공천

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호남 출신의 한 의원은 “수도권에서 낙선한 한 인사는 아예 당시 실세인 A에게 20억원, B에게 얼마, C에게 얼마 등을 줬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닌다”면서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실세에게 복수로 줄을 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이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분명한 것은 청와대에서 내사 결과 김옥희씨가 그 돈을 공천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게 없고, 김종원씨도 김옥희씨 말고 다른 사람에게 로비한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천 업무를 총괄했던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선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고, 특정 실세들이 나눠먹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실제 명단을 보면 면면이 협회장들이고, 지역별로 안배하고 누가 봐도 고생했던 사람들을 챙긴 정도로 다 이유가 있고 납득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노동자의 날’ 제정 범안 발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5일 정부와 노동자단체가 각각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혼용하고 있는 메이데이(May Day·5월1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통일하는 내용의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다른 명칭을 각각 사용, 혼란을 부추기고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정신을 기르는 메이데이의 취지에 맞춰 노동자의 날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였던 1922년 5월1일 조선노동맹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로 변경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1일로 원상복합시켰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초등·1차(11월 2일), 2차(11월16일)시행 / 중등: 1차(11월 9일), 2차 시험(12월14일) 시행예정

관심없는 공부하는 당비일 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 팍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대모집!**

팍내영교육학 현재 상임 교수 **개강 9월 5일** 팍내영고시학원 **529-0090**

http://www.naeyoung.com

유·초·중등 임용고시의 모든것!

강좌개설

교육학	곽내영
유아교육	임미선
전공국어	최병해
국어교육론	마운용
전공수학	임대성
전공생물	강치욱
전공물리	장영민
전공미술	김성희
전공체육	김홍호
일반사회	김형수

새롭게 개편된 3단계 시험제도 - 적응하는 자만이 성공 할 수 있다!

# 교원임용무료설명회

매주(화,금) 11시, 3시, 7시(임용가이드제공)

처음 시작에서 최종합격까지 전문상담을 통한 합격 프로그램 제시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www.mdgosl.co.kr

**파격! 破格!** 획기적인 여름방학 **외국어 공부!**

최소비용!으로 최고명강(最高名講)을!

토마토TOEIC	해커스TOEIC	맨투맨 영어	<b>수강증 1개로 2개 강좌 동시수강!</b>
외국어 영어회화	TOEIC Speaking	중국어 일본어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소방 방재청은 인력이 부족한 맞교대 격무부서에 올해안에 2,228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한다!

국가지 직 **7.9급 공무원** 합격 **지방직**

강좌직종: 행 교세관 법검철 교보보복군토건설 정행무세원찰공정호전지무목측산

하반기 시험 **개강** 합격수강회원모집

8월1일(주·아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6개월(총)회원 80만명  
1년(총)회원 120만명  
합격시까지 170만명

www.mdgosl.co.kr **222-4560**

여러분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 생활안내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한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시험 10월 26일 원서접수 8월19~8월27일 학원에서 접수대행

7월? 문제풀이특강 8월 핵심이론 + 단원별 문제이해

9월? 종정리 및 실전문제특강 10월 동형 모의고사 + 일일 단기특강

국비무료 교육보험 환급과정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중개사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인문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학원1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